복음적 방관자효과의 쾌거

(에스겔 47:1~23)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 방관자효과의 쾌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적 방관자효과의 쾌거'

"방관자 효과"란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되어 오히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30m미터만 걸어가면 아파트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강도가 나타나서 제노비스의 등을 칼로 두 번 찌릅니다. 제노비스는 크게 비명을 질렀지만 동네 사람들은 싸움이 난 줄로만 알고 시끄럽다고 고함을 쳤을 뿐이었습니다. 강도는 동네 사람의 고함에 놀라 일시적으로 도망을 쳤지만 몸을 숨기고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고함을 쳤던 사람들도 조용해지자 창문을 닫았습니다. 강도는 다시 돌아와서 아직 의식이 있어서 저항하던 제노비스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렇게 35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제노비스는 계속 비명을 쳤지만 그 누구도 내다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훨씬 시간이 흐른 이후에야 발견된 제노비스는 구급차에 실려 가는 도중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 사건이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아파트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미국 전체가 상실된 인간성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빕 라테인(Bibb Latane)은 한 가지 실험을 통하여 특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히려 목격자가 많았기에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제노비스의 비명을 무시하고 돕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호한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책임감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혼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목격자가 많다는 사실로 인해 누군가는 신고하리라고 여기며 안심한 것입니다. 이를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책임감 분산으로 인한 방관자 효과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30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정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체감한다면 곧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반드시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목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격하셨다는데 내가 책임감을 갖고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수록 삶에 대한 책임감은 강해지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드릴수록 삶에서 마주하는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 방관자가 됩니다. 책임이 하나님께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이룩한 쾌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방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방관자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책임감이라는 말은 합당하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조차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교인들의 뇌리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주입한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경계해야만 합니다. 불신앙과 책임감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8절을 예로 들어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이 말씀을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위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곧 판단을 의미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스스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두 말씀이 위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이 온전히 합쳐진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16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판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손대시고 관여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방관자의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일에 대해 한 번도 책임감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 방관자이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분뿐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물줄기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방관자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으로써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이심으로 이 세상을 상관하는 방관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최고의 방관자이셨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 최고의 방관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세우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

에 대해 책임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공허함으로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 두 가지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책임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적인 악함에다 나태함까지 덧붙여지는 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관자인 나를 통해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성전의 환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에 동서남북 네 방향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의 문은 폐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폐쇄된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와 성전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무릎까지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사람 키를 넘길 만큼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땅을 살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심지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면서 어촌이 생길만큼 고기들의 풍성한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전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에 햇빛이 성소를 가득 채우며 지성소의 휘장까지 들어오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은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는 곧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나 자녀의 형통이라는 이름을 두었다면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실제로 빛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선민이 관계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짐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마음 채움을 추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자 땅에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평강의 조건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해 세상이 관계가 없으니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자녀를 담은 부모는 자녀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관여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하지 않으면 마음에 커다란 공허와 슬픔과 괴로움이 생기리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게 되면 기쁨과 만족을 얻었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방관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나온 물줄기가 성전을 관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방관자가 되면 오히려 삶에는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선민들 각자의 마음에서 성전을 생활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생활화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하나님 한분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쪽 문을 폐쇄시켰다는 것은 하나님 한분만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가 끝장났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관자가 된 나로부터 방치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메마르고 황량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된 세상으로는 생명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그 모습이 6~12절에 걸쳐 나타납니다. 특히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라바는 사해 주변의 저지대 전체를 일컫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이처럼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한 황량함과 척박함의 절정이 사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사해는 염도가 너무 강해서 어떤 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면서 사해 주변에 어촌이 생길 정도로 풍성한 지역이 되는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해는 곧 내가 방관자가 된 대상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의 물줄기가 가지 않는 방치된 곳입니다. 마음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하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전 생활화함을 통해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방치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즉 내가 방치하여 사해가 되어버린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살아갑니다. 다만 마음의 물줄기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방치한 세상의 대상들은 나의 돌봄이 없는 사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보지 않게

된 그 사해 같은 대상들에게 열매와 생명을 한 없이 불러일으키는 생수의 강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9절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은 내가 방관자가 된 대상의 영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노비스가 당한 사건은 생명을 잃는 실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를 신앙적인 비유로 삼아서 해석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될 때에 생명을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의 물줄기는 어느덧 이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로 향하는 아브라함 마음의 물줄기를 끊고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바라시며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이삭의 생애에 대해 방관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 정도의 각오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을 사해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만민의 고리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시는 복음적 방관자 효과의 엄청난 비밀이자 약속입니다.

한편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 3~5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더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전을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드림은 단발성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드림이 지속되지 않기에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드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십자가 생활화가 가져오는 은총의 강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시도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을 드리자 은혜가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이윽고 허리까지 오고 키를 넘길 정도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만큼 세상에 대한 방관자가 되고 그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드림이 물줄기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발적이고 간헐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놓칠 때마다 하늘로 향하는 마음의 물줄기는 끊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방관자이셨습니다. 이는 곧 인류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께 마음의 물줄기를 대고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1%도 세상을 향하시는 법이 없으셨고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한 물줄기를 유지하시는 동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셨고, 그 결과 세상의 수없이 많은 생명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방관자가 될수록 열매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설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 방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노비스의 사건에서 책임감 분산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방관자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앙이 세상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일을 다 끌어안고 무척이나 강한 집착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마음에서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끌어안는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책임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강하게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극치에 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방관자가 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끝없이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 줄 마음이 없어지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철저한 방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 완벽한 방관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드림을 물줄기를 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물줄기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작 발목에 차는 정도의 은혜에 머물고 십자가 생활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가 이어집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대상과 영역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갈 영역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때에 생명과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겠다는 계획과 결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복지와 같은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방치시켜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마음의 물줄기를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줄기가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동안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방관자가 되어 사해처럼 되어버린 영역과 대상들을 생명이 가득한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어나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책임감을 가질수록 떨어집니다. 오히려 방관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때에 삶의 질은 최고가 됩니다. 나태함의 방관자 효과나 두려움의 방관자 효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물줄기를 대드리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쾌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방관자가 된 삶의 영역마다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드림이 물줄기처럼 지속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 철저한 방관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해처럼 방치 되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어촌이 생길 정도로 풍부한 어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